

도덕성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1) -대학생의 자기보고를 중심으로-

방 은 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개인의 도덕성 발달과정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도덕성발달을 발달과정의 유형, 도덕성 안정기, 도덕성발달요인 및 형성된 도덕성 개념 등 네가지 측면에서 다루었다. 서울과 춘천 지역의 대학생 502명(남 296, 여 206)이 진술한 도덕성 발달에 대한 자유 형식의 '自己報告書'를 '內容分析'하여 연구자료로 사용 하였고, 분석단위는 문맥 단위로 하였으며, 분석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χ^2 검증을 통해 요약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도덕성발달과정은 順坦型과 屈曲型발달과정으로 구별되며, 연구대상자의 1/4이상은 굴곡형 발달과정을 경험하고, 약 6.4%는 현재까지 發達猶豫상태에 있다.
2. 도덕성 안정기는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순탄형 발달과정에서는 국민학교시기에,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는 대학교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3. 도덕성 발달요인은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순탄형 발달과정에서는 '사람의 경험'과 '사건의 경험'이,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는 '다양한 생활경험'과 '사고의 성숙 경험'이 가장 많이 작용한다.
4. 도덕성 개념은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순탄형 발달과정에서는 '意志指向的 도덕성'이,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는 '原理指向的 도덕성'이 가장 많이 형성된다.

따라서 순탄형 발달과정에서는 국민학교시기에 '사람'과 '사건'의 경험을 통해 '의지지향적 도덕성'이 가장 많이 발달하게 되고,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는 대학교 시기에 '다양한 생활'과 '사고의 성숙' 경험을 통해 '원리지향적 도덕성'이 가장 많이 발달하게 된다.

핵심어 : 도덕성 발달과정 · 순탄형 발달과정 · 굴곡형 발달과정 · 발달유예 · 도덕성 발달요인 · 도덕성 안정기 · 도덕성 개념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社會化되는가 라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 사회가 지향하는 價値觀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개인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것

은 개인의 삶이 결코 개인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삶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인간에게는 '道德의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로서 요구되어져 왔다. 그렇다면

道德이란 무엇인가?

김형석(1992)은 道란 人間이 걸어야 할 정신적 도리이며, 德이란 道를 지키고 따랐을 때 얻어진 精神 및 人格의 결과라고 하였다. 즉 人間의 道理를 지키는 것이 바로 道德인데, 이계학(1990)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 즉,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일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여,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시사하였고, 이는 바로 道德敎科의 책임임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道德性 回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道德性 喪失에 기인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바, 이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道德敎育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도덕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우선 도덕교육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普遍的 價值와 文化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으로 구성된 도덕교육은 결과적으로 道德의 混亂을 야기시킬 위험이 있다. 김광웅과 방은령(1992)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도덕교과를 통해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한 4명 중 3명은, 성장하면서 '理論과 現實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도덕교과는 물론 그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모두 不信하게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 환경이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교과 내용이나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도덕교육은 道德性 本質에 근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덕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졌는데, 하나는 이미 사회가 정해 놓은 제도, 관습, 규칙 등의 外的

인 規範을 內面化함으로써 형성된다는 것으로, 정직, 절제, 성실, 정의감 등등과 같은 德目들이 도덕성의 핵심이 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도덕성을 덕목의 하나로 보지 않고 개인이 갖는 批判力이나 判斷力과 같은 思考의 능력으로 보는 관점이다. 근래의 도덕교육은 전반적으로 후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장성모, 1986; 최정근, 1992). 그러나 흔히 '內容'과 '形式' 또는 '習慣'과 '理性'으로 구별되는 이와 같은 관점은 도덕성을 설명하고 發達(敎育)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 1981). 그것은 도덕성이란 보다 總體的인 人格特性으로서 그 안에는 認知的·情意的·習慣的 側面이 모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교육은 人間을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하기보다는,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이중 인격자를 만들 위험이 있고, 이와 같이 道德的 思考를 行動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理論과 現實의 乖離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사회를 도덕적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덕교육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한 道德的 發達過程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성을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론들은 도덕성을 어느 한쪽 측면에 초점을 두어, 단일한 과정을 통해 발달해 가는 것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회 안에서 동일한 과정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해 가는 것은 아니며, 인생 초기에 바람직한 도덕성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광웅과 방은령(1992)은 아동기에 형성한 도덕성이 성인기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도중에 그 효과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으며,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도덕적 혼란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인지적 도덕 발달 이론의 핵

심이 되는 段階移行의 系列成을 검토한 연구들에서도, 연구 대상자 중 일부는 移行過程에서 退行現象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상윤, 1985; Holstein, 1976; Kohlberg와 Kramer, 1969; Turiel, 1977), 同一視 過程을 통해 도덕성을 설명한 Freud(1921)의 주장도 Hoffman(1970)과 Mischel(1970)에 의해 그 강도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학자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개인마다 발달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도덕성은 '認知能力'이나 '性格'과는 또 다른 훨씬 더 복잡한 설명이 요구되어지는 영역이므로 개인마다 도덕적 발달 과정은 좀 더 복잡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發達過程의 實際가 반영되지 않은 이론을 근거로 구성된 教育內容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그 동안 도덕성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도덕의 內容과 形式을 統合하여 도덕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려는 시도와, 인지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연령에 따라 道德判斷能力이 段階의 移行을 하는지를 검토하는데 관심이 모아졌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유형의 도덕성을 형성하였는가를 통해, 도덕성의 발달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道德性의 本質과 '個人과 社會'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도덕교과와 새로운 구성이나 기존 이론에 대한 재검토에 앞서, 개인의 도덕성 발달과정을 반영하는 보다 사실적인 자료가 필요하게 된다. 즉,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 언제, 어떤 경험을 하고 성장해 왔으며, 그 결과 어떤 도덕성을 형성하였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道德의 價值觀을 설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도덕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선행하여야 할 작업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도되었다. 즉 개

개인이 삶의 체험을 통해 도덕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도덕교육을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통찰력을 심어 주고, 도덕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와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도덕성 발달과정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도덕성 발달에서 도덕성 안정기는 언제인가?
 3. 도덕성 발달요인은 무엇인가?
 4. 대학생들이 형성한 도덕성 개념은 무엇인가?
- 한편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덕성 발달에서의 성차의 문제도 함께 다루었다.

이론적 배경

1. 道德性의 本質

도덕성은 사람마다 그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도덕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인간의 경험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道德性'은 '內容(德目 또는 習慣)' 또는 '形式(信念 또는 理性)'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형식의 입장을 따르는 Kohlberg는 道德的인 評價관 여기에 대한 準據나 基準을 定立한 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도덕성은 必然的으로 認知的인 思考發達에 依存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의 이론에서는 처벌을 회피하고 복종을 지향하는 사고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道具指向的인 思考를 가장 낮은 수준의 도덕성으로 보았고(전 인습수준), 대인 관계에서의 조화를 지향하는 利他的인 도덕성과 법과 질서를 따르는 慣習的인 도덕성을 도덕이 내면화되어 가는 過渡期로 보았으며(인습수준), 민주적 태도를 존중하는 社會契約制立法精神과 인간의 보편적 윤리 원리를 지향하는 자

己原理의 道德性을 도덕이 내면화된 가장 성숙된 수준으로 보았는데(후인습수준), 엄밀한 의미에서 그가 말하는 도덕성이란 후인습수준에 해당하는 原理의 道德性으로서, 전인습수준이나 인습수준에서 나타나는 도덕성에 대하여 그는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Peters(1981)는 Kohlberg의 이와 같은 관점을 비판하면서, 因習(習慣)의 道德은 어떠한 도덕적 삶에서도 論理的으로 또 實際적으로 필요하며, 도덕성의 발달은 習慣의 道德性을 통해 理性의 道德性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이돈희(1992)도 道德의 信念은 實踐이 前提될 때 價値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도덕적 신념이 전제되지 않은 習慣은 도덕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밝힘으로서 內容으로서의 도덕성과 形式으로서의 도덕성이 서로 모순이 아닌 人格統合의 必要條件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Eisenberg, Lennon & Roth(1983), Hay(1979), Rheingold(1982), Gilligan(1982) 등은 도덕성의 본질을 利他的인 性向으로 규정하고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기초한 責任倫理를 도덕성의 주요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성향의 도덕성은 2-3세 때부터 갖출 수 있는 특성으로서 Kohlberg의 주장과 같이 특정의 인지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Gilligan(1982)은 Kohlberg가 20년 동안 계속하여 탄생시킨 도덕성 발달이론의 연구 대상이 모두 男子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가 설정한 도덕성은 편파적인 것으로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다. '道德'이란 본질적으로 人間關係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Kohlberg의 이론은 대인 관계와 타인에 대한 배려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한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Gilligan은 도덕적 추론은 公正性의 관점(justice perspective)과 配慮의 관점(care perspective)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녀가 말하는 공정성의 관점은

인간이 개별적으로 간주되고 개인의 권리, 즉 공정이 중심이 되며, 배려의 관점은 他人과의 이해, 협조, 봉사 등이 포함되는데, 후자의 경우 여성에게 더 많이 발견되므로 여성적 도덕성으로, 전자의 관점은 남성적 도덕성으로 규정하였다(Gilligan, 1982).

한편, Kohlberg가 정칙과 같이 습관으로 기능하는 인격 특성들은 도덕 생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견지해 온 Peters(1981)는 도덕생활에서의 習慣의 중요성과 함께 德과 習慣의 관계를 고려한 道德類型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시간 엄수, 청결, 정칙과 같은 1類型的의 德은 習慣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도덕은 內面화된 社會的 規則을 따른다. 이와는 달리 動機로 작용하는 憐憫과 같은 2類型的의 德은 감정을 우러나게 하고 특정의 상태가 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덕으로서 도덕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며, 많은 思考過程이 개입되는 3類型的의 德은 정의로움, 분별력 등과 같이 권리나 제도 등 一般的 原理를 고려해야 하는 덕들이다. 또한 그는 逆性向(counter-inclination)에 직면할 때 작용하는 용기, 성실, 인내 등과 같이 自己統制力을 요구하는 德들을 4類型的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그는 1類型的의 德을 제외한 나머지 德은 習慣에서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Peters는 도덕성을 習慣에서 이끌어질 수 있는 것과 理性에서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와 같은 도덕 유형간에 位階는 가정하지 않았지만, 4類型的의 德을 보다 上位의 德으로 간주하였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이나, 형식을 중시하는 입장 등은 모두 도덕성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본질적으로 도덕성은 認知的, 情意的, 習慣의 特性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總體的인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조화로운

접근이 가능할 때 보다 더 명확히 규명되어질 것이다. 내용을 배제하고 형식을 강조한 Kohlberg도 이 둘의 관계에서 도덕성을 어떻게 규명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자로서 苦惱가 컸음을 솔직히 토로한 바 있다(Kohlberg, 1981; 1984).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傳統的으로 도덕성을 倫理라는 개념을 통해 그 성격을 규정해 왔다. 즉 共同生活의 基底를 이루고 있는 行爲의 法則과 人間의 道理를 찾아 따르는 것(김형석, 1992)이 윤리인데, 한국의 전통적인 윤리 속에는 원시 신앙이었던 경천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한 人間尊重 思想과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民本主義 思想, 儒敎를 통해 전달된 忠, 孝, 敬, 愛, 禮, 仁, 義 思想, 불교를 통해 전달된 慈悲心, 그리고 도교를 통한 心身鍛鍊과 人格修養 등이 포함되어져 있으며(정세구, 1992) 이는 현재까지도 普遍的 價値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남아 있다.

2. 道德性 發達理論

발달적인 측면에서 도덕성의 주체는 行爲에 대한 動機 또는 行爲後의 反省으로 보는 觀點도 있고, 行爲의 結果를 도덕성의 주체로 보는 견해도 있다. 精神分析學에서는 도덕성의 주체를 '良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Freud (1921)는 사람은 태어날 때 양심의 덩어리가 아니라 충동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道德的 行動을 할 수 없는 存在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父母와의 관계를 통해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구별해 내고 점차로 社會의 規範에 따르는 行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誘惑에 대한 抵抗과 잘못에 대한 罪責感을 갖게 해주는 源泉이 바로 그가 말하는 良心인데, 이 良心이 인간의 모든 道德的 行爲를 內面的으로 統合하고 統制하는 일관된 性格特性이라는 것이 Freud의 견해이며, 그는 이것을 超自我(super ego)로 표현 하였다.

인간의 超自我를 구성하는 良心은, 이른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극복하는 시기인 5-6세 경에 부모를 同一視(identification)하는 心理的 過程을 거침으로써 基本的으로 완성되고, 일단 이러한 內面化가 이루어지면 밖으로부터 들어온 道德的 基準이 마치 내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양심으로 인식되는바, 만약 불완전한 도덕적 기준이 내면화되면 초자아의 힘은 그만큼 약해져서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Freud의 양심, 즉 초자아는 무의식 속에 숨겨진 형태로 존재하며, 그것은 인지적 특징보다는 情意的 特性을 더 많이 지니게 된다.

그러나 學習理論의 입장에서는 도덕성을 관찰 가능한 道德行爲의 총체로 본다. 즉 특정의 행동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개인이 갖게 되는 內面的인 이유나 갈등보다는 外的으로 나타나는 '行爲로서의 結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이론에서 말하는 도덕성이란 도덕적 행위이며, 이는 훈련이나 모델링 그리고 賞과 罰에 의해 길러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이론가들은 아동이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成人의 仲裁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Skinner(1971)는 그의 著書「自由와 尊嚴을 넘어서」에서 인간은 잡지도 환경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적합하지 못할 때 그 행동은 가차없이 도태되며, 결국에는 그 인간도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하여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은 상과 벌을 통한 體系的인 자극을 주어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을 조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적극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도덕발달에 대한 이와 같은 두 관점은 道德的 行動 혹은 道德的 習慣을 행위자의 選擇이나 判斷

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도덕성 발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Piaget를 중심으로 하는 인지이론가들은, 도덕성의 중심 요소는 判斷力이며, 그 판단력은 認知能力의 成長과 함께 보다 自律의 이고 成熟한 형태를 취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Kohlberg는 도덕성 발달은 주로 개인의 도덕적 추론능력에 근거하며, 그것은 불변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달한다고 믿었다(Kohlberg, 1984). 또한 그는 도덕적 추론 능력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달하는 것은 認知的 葛藤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는데, 최적의 갈등은 개인이 자신의 現在段階보다 하나 높은 단계의 주장에 당면했을 때 일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덕성 발달은 개인의 사고와 問題 解決力을 자극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社會的 適應이나 精神健康과는 다르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러나 Kohlberg와 같은 인지이론가들의 주장도, 도덕성을 道德的 推論能力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도덕성을 도덕적 사고로 국한시키는 것이 합당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Blasi(1980)는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文獻들을 고찰하면서, 도덕적 사고의 발달이 도덕적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인간이 자신이 판단한 대로 행동을 하느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갖게 한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생들을 상대로 연구한 정문성과 구경화(1991)는 도덕 판단의 수준과 문제 행동간에 個人的 次元에서나 集團比較 次元에서 아무런 相關關係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하면서, 道德的 '知'와 道德的 '行'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는 관점에 대해 무리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상의 세 관점은 각기 도덕성의 한 측면만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도덕성 발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세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精神分析理論이나 學習理論 및 認知理論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關聯研究들을 보면 이 세 관점은, 각기 초점을 두고 있는 領域내에서도 理論的으로 여러 가지 疑問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offman(1970)과 Mischel(1970)은 정신분석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도덕적 속성들 예컨대, 도덕적 판단, 유혹에 대한 저항, 죄책감 등이 동일시를 통해서 획득된다면 이들 속성들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성들 간의 상관관계는 낮으며, 도덕적 양심도 정신분석이론에서 말하는 부모의 훈육방법, 즉 애정 철회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에도 연구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도 동일시가 도덕성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동일시가 부모의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單一한 過程은 아니며, 따라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정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또한 아동이 도덕적 갈등상황에 놓였을 때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외적 규제에 있지 않으며, 만 족스런 상황뿐만 아니라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아동은 모델의 행동을 동일시 한다는 결과(Hoffman, 1981)는 학습 이론적인 주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도 段階間 移行過程에서 退行현상이 나타난다는 결과들(김상윤, 1988; Holstein, 1976; Kohlberg와 Kramer, 1969)과 段階間의 移行을 質的인 변화가 아니라 相對的인 비율의 변화로 본 Rest(1975) 등에 의해 논란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Kohlberg와 Kramer는 段階間 移行過程에서 나타난 退行 현상을 인지상의 '構造的 退行'으로 보지 않고, 上位段階의 道德 原理가 '그 자신의 正體性'으로 안정되기에 앞서 요구되는 이전의 도덕원리에

대한 의혹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發達的 進步'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Kohlberg와 Kramer, 1969). 그러나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판단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불변의 단계를 거친다는 그의 이론에 의혹을 제기하게 한다.

또한 도덕적 행동과 사회인습적 행동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도덕성의 중요한 영역을 이미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형성하게 된다는 주장들(Nucci, 1982; Smetana, 1981)과 Kohlberg의 도덕성 발달단계는 본질적으로 인지적 특성으로 이루어진 단계(단계2, 단계 5, 6)와 비인지적 특성으로 이루어진 단계(단계 3, 4)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혼합된 상태에서 인지능력에 근거한 발달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김상윤, 1988)도 Kohlberg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도덕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대한 문제도 이론마다 다른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Freud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5-6세에 基本的인 道德性이 完成된다고 보았고, Kohlberg는 인지적으로 形式的操作能力이 가능한 靑少年期 이후에야 높은 수준의 도덕적 추론능력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학습이론적 입장에서는 연령상의 한계를 두지 않았다. 또한 Nucci(1982)와 Smetana(1981)는 3-4세의 아동이라도 도덕적 행동과 사회인습적 행동을 판단하는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도덕성 발달이론들은 각기 어느 한 관점에서 도덕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관점 내에서도 일관되게 지지를 받아 온 이론은 발견하기가 힘들다. 그것은 도덕성이 그 만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하며, 발달 과정 또한 그러한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道德性 發達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

'道德'은 個人과 社會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도덕성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他人과의 相互作用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타인은 바로 부모이므로, 초기의 도덕성 발달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reud(1921)는 아동은 적대적 혹은 성애와 관계되는 충동을 억제하고 처벌을 피하며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부모를 동일시하거나 부모가 정해 놓은 규칙과 금지사항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덕적 내면화가 이루어지며, 아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딸의 경우는 어머니가, 道德的 社會化의 主擔者가 된다고 하였다. Hoffman(1981)도 부모는 자녀의 모델이고, 훈육자이며, 애정 제공자임과 동시에 자녀와 사회를 이어주는 연결자라는 점에서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덜 중요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는데, 즉 어머니는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도덕적 사회화의 주담당자가 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만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Parsons와 Bales(1955)도 어머니는 가정에서 애정을 주고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表現的 役割을 수행하고, 아버지는 사회에 대한 보다 더 큰 道具的 展望과 規範을 가정에 도입하여 행동하게 되므로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다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부모의 태도나 행동에 따라 아동의 도덕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을 낳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애정에 바탕을 둔 說明的 訓育方法은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는데(Becker, 1964, 재인용; Hoffman, 1977), 설명적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의 도덕적

변화가 빠르고 높은 죄책감을 형성하며 感情移入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광웅과 방은령(1992)의 연구에서는, 애정에 바탕을 둔 경우에 부모로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적 훈육을 받거나 꾸중이나 체벌 등과 같이 엄격한 형태의 훈육을 받거나 상관없이 모두 도덕적으로 성숙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信賴感이 어머니의 훈육을 자녀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한다는 研究結果도 있다(Lytton, 1979).

또한 한 가정이 지니는 가치관도 그 가정의 心理的인 氛圍氣를 조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우리 나라의 경우, 靜的이고 精神的이며 家父長的인 儒敎文化가 오랫동안 지배해 왔기 때문에(류점숙, 1991), 개인의 발달과정에서도 이로 인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儒敎의 孝의 概念은 우리의 育兒樣式 속에 상당히 깊은 영향을 미쳐(김재은, 1969, 재인용), 어른을 恭敬하고 家族·親族間의 親愛를 강조하는 우리의 전통윤리(정세구, 1990)가 현대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다소 그 가치가 약화되기는 하였어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 普遍的 價値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韓國人의 靑少年期 社會化 過程을 연구한 黃禎奎, 安貴德, 李鍾珪 및 李長鎬(1989)의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부모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祭祀나 省墓의 慣習은 그대로 수용하는 儒敎的 價値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公益에 관련된 일에 당면했을 때 利己心을 버리고 公義를 우선하는 것, 즉 '사람의 도리'로서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나중으로 돌리는 것도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중의 하나인데(이계학, 1992), 이민태(1988)는 이것을 羞恥意識에 토대를 둔 羞恥道義를 지닌 儒敎人들의 특징으로 보았다.

한편 또래와의 관계도 도덕적으로 중요한 작용

을 한다(Piaget, 1948, 재인용). 또래와의 相互的 役割受容은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아는데 도움이 되며 관계 속에서 規則과 禮節을 익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따라라도 도덕적 사회화는 다르게 나타나는데(최현섭, 1985), 학교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權威型 相互作用을 경험했을 경우, 아동은 다른 아동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의 행동 선택에서 因襲과 權威原理의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교과 과정에서 說得型的 相互作用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道德內容(공정성과 자율성)을 權威型的 相互作用을 통해 전달했을 경우에도 아동은 인습 및 권위원리의 도덕적 행동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무리 좋은 덕목이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광웅과 방은령의 연구(1992)에서는 아동기의 도덕성 발달 과정에서 도덕 교과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한 4명중 3명이, 성장 후 교과서의 내용을 불신하고 이전에 형성된 도덕적 가치관을 바꾸게 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이들 3명은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背信感을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김재은(1994)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認知的 成熟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에 이르면 推理하고 判斷하는 능력이 매우 발달되어 세상에 대한 矛盾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어른의 세계와 부모 세계의 모순을 예리하게 탐지해 내고 극단적으로는 타도의 대상으로 삼게 되며 既成世代를 모두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Hofman(1981)은 이와 같은 도덕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도덕적 성숙을 촉진시키

며, Kohlberg (1984)도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는 不均衡(disequilibrium)이 청소년에게 인지적으로 도전하여 도덕구조를 개정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도덕적 성숙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도덕성을 自我의 한 측면으로 보고 自我概念의 발달을 도덕성발달의 필요 조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Erikson, 1963; Kohlberg, 1984; Loevinger & Wessler, 1970, 재인용; Peters, 1981). Podd(1972)도 자아 정체감이 명확히 형성된 대학생들은 그 형성 수준이 낮은 대학생들보다 도덕 추리 능력 수준이 높으며, 자기의 운명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의해 좌우된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도덕성 수준은 더 높았다고 하였다. 저서 '나를 존중하는 삶'을 통해 인간의 삶에 있어서 自我尊重感의 기능을 설명한 Branden(1992)은 인간은 자신이 주장하는 價值・信念・確信과 一致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는데, 즉 책임 있고 성실한 삶 속에서 자아 존중감은 형성된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도덕성과의 관계를 시사하였다.

또한 心理的 猶豫期(psychological moratorium)를 경험하는 것이 자아를 확립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데 유익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유예기를 경험한 Erikson(1970, 재인용)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나 자신이 이태리에서 방황하며 예술단을 쫓아 쏘다니던 心理的 猶豫期 동안, 나는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젊은 시절에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對抗하여 節制할 수 있는 思想이나 그 思想을 實踐할 수 있는 능력을 찾지 못한다면 분명 젊은이는 墮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Erikson, 1970, pp. 743-744)”

따라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인지적인 갈등이나 심리적 유예기 동안의 다양한 경험은 개인을 도덕적으로 성숙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기 도덕적 사회화 과정을 다룬 김광웅・방은령(1992)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동안 경험한 주변의 인물이나, 특정의 사건, 책, 종교 등이 도덕성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형식의 진술로 모아진 연구 자료에서 연구대상자들의 63%는 성장 과정에서 만난 주변의 사람을 통해 도덕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17%는 非行이나 善行 등의 特定事件을 경험하면서 도덕적 성숙을 촉진하였으며, 12%에 해당하는 사람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8%가 종교를 통해 도덕성이 발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도덕성은 부모의 태도나 훈육방법, 가정의 심리적인 분위기, 그가 속한 사회의 전통적인 價值觀, 또래와의 관계, 학교의 교육, 인지적인 성숙이나 自己檢證의 경험 그리고 자아 정체감의 발달 등과,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특정의 사건이나 책, 종교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도덕성 발달에서 性別에 따른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도 오랫동안의 관심사이었다. 동일시 과정을 통해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였던 정신분석 학자들은 남자에 비해 여자는 동일시 과정이 산만하여 결과적으로 도덕적 내면화가 빈약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Freud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실제로 Freud의 견해를 지지하는 연구는 발견하기 힘들며 그 중에서도 Gross (1972, 재인용)의 연구를 보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길에서 습득한 값비싼 물건을 되돌려 주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다는 사실에서도 여자가 남자에 비해 도덕적 내면화가 빈약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다.

반면 도덕성을 인지적 사고와 동일시하는 인지 이론가들은,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Kohlberg, 1981; Rest, 1979; Turiel, 1966, 재인용), Walker(1984)도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추론이 다르다기 보다는 더 많이 비슷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지발달 그 자체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Piaget, 1960, 재인용)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도덕성은 이타성이나 관습준수 등 非認知的 特性들이 배제된 상태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Gilligan(1982)도 Kohlberg의 딜레마에서는 여성의 주요 관심사와 관점이 배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다를 것을 인식시켰다. 따라서 Gilligan(1982)과 Lyons(1983)는 道具的이고 規則的이고 獨立의인 측면이 강한 것은 남자의 도덕성이고, 獻身的이고 關係的이며 友好的인 측면이 강한 것은 여자의 도덕성이라고 구별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타인을 돕는 행위나 타인과 애정을 함께 나누는 共感 등을 여자에 관련되는 특질로 보았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이러한 특성들이 도덕성 발달에서의 성차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Kohlberg이론에서 도구적이고 성취적인 도덕은 단계 2이고, 이타적이고 타인배려를 하는 도덕은 단계 3에 해당되므로, 단계 2에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그리고 단계 3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낼 것이라는 假定을 이끌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상운(1988)의 연구에서는 단계 2와 3 모두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계 5와 6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특성인 단계 5와 6에서 성차가 발견되고 비인지적 특성으로 이루어진-이타적이고 관습적인 도덕성-단계 3과 4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성격특성을 근거로 남성적 도덕성과 여성적 도

덕성을 구별하는 이론들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였다.

또한 남자는 自己信賴的이고 자신의 행위와 환경을 통제해 나가는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외부의 요구에 반응해 가는 존재로 기대 되는 여자에 비해 결과적으로 내면화된 도덕성을 더 빨리 갖는다는 주장(Aronfreed, 1961)이 있는가 하면, 여자는 전통적으로 감정을 주고받는 표현적기능이나 남의 필요에 반응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인간 및 도덕적 관심을 획득하게 되었고, 남자는 성장하면서 업적과 직업적 성공을 위해 필요한 도구적 성격자질과 능력을 중시하여 결과적으로 인간 및 도덕적 관심을 약화시켰다는 주장(Hoffman, 1975)도 있다.

이상과 같이 도덕성발달에서 성차를 지지하는 일관된 자료는 발견하기 힘들다. 이것은 도덕성발달 연구에서 性別 要因이 좀 더 관심 있게 다루어져 될 영역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춘천 지역의 대학생 502명(남 296, 여 206)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발달적으로 이들은 성인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사고의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최고의 교육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로서 도덕성의 개념을 설정하는데 모범이 될 수 있는 계층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자료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自己報告書(self-re-

port)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1992년 5월 3일에서 1992년 5월 10일 사이에, 대학 강의실에서 연구 대상자들을 集團의으로 만나 “나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자유 형식의 자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진술 내용에는 家族關係와 成長過程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진술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술 형식이나 도덕성 개념 등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며, 주제와 관련된 질문 이상의 어떤 내용도 연구 대상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기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약 한달 간의 기간을 주었으며, 작성된 보고서는 1992년 6월 3일에서 1992년 6월 10일 사이에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회수된 보고서는 처음에 974개 었으나, 진술 내용이 성실하지 못한 것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자료는 502개였다.

연구자료는 편의상 여자의 경우 C001~C206의 번호를, 남자는 C501~C796의 번호를 붙여 사용하였다.

표 1. 도덕성 발달과정의 유형 범주

발달과정	내 용
① 순탄형	이전에 형성된 도덕성이 유지되면서 발달적 경험에 따라 새로운 도덕성이 첨가되거나 혹은 기존의 도덕성이 더욱 확고히 된 경우
② 굴곡형	발달적 경험에 의해 이전에 형성된 도덕성이 중지 또는 퇴색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도덕성이 형성된 경우
③ 발달 유예	발달적 경험에 의해 이전에 형성된 도덕성이 중지 또는 퇴색되지만, 가치관의 혼란으로 현재까지 새로운 도덕성이 형성되지 못한 경우

자료분석

연구자료는 ‘內容分析(content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단위는 文脈單位로 하였으며, 분석내용은 도덕성발달과정의 유형, 도덕성안정기, 도덕성 발달요인, 그리고 발달 과정을 통해 형성된 도덕성 개념이었다. 분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박사 과정을 수료한 아동학 전공자 1명과 본 연구자가 C001~C025, C701~C725에 대하여 分析者間 信賴度を 구하였으며(.76 - .92), 이들에 대하여 연구자가 2번 분석하여 分析者內 信賴度を 구하였다(.86 - 1.00)

1) 분석범주

① 도덕성 발달과정의 유형

모든 발달영역이 그러하듯이 도덕적 가치관과 태도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도 사람마다 다르다. 어렸을 때에 형성된 도덕성이 성인 후기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초기에 특정의 도덕성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발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또 다른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경우도 있으며, 성인기에 접어들어서 까지 도덕적가치관이나 태도를 정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김광웅과 방은령, 1992).

도덕성 발달과정의 유형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즉, 현재 갖고 있는 도덕성이 초기부터 附加的으로 效果를 유지한 것인지 혹은 도중에 變化의 時期를 거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② 도덕성 안정기

도덕성 안정기란 순탄형 또는 굴곡형발달과정을 통해 현재의 도덕성이 형성된 시기를 말하는데, 순탄형 발달과정의 경우, 진술 내용상 발달요인이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시기를 安定期로 보았으며, 굴곡형 발달과정의 경우, 屈曲에서 벗어나

현재의 도덕성을 형성한 기간중 발달요인이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 시기를 安定期로 보았다.

표 2. 도덕성 안정기의 범주

시 기	내 용
국민학교	어렸을 때부터 국민학교 졸업 전까지의 시기. (진술 내용중, 구체적인 언급 이외에 '국민학교 시절', '어렸을 때', '아동기 때' 등의 표현도 이에 해당됨)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졸업 후부터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의 시기. (진술 내용중, 구체적인 언급 이외에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 때' 등의 표현도 이에 해당됨)
대학교	고교 졸업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 (진술 내용중, 구체적인 언급 이외에 '대학교 시절', '대학 입학을 위한 재수 시절', '군 복무 기간', '사회 생활 기간' 등이 이에 해당됨)

③ 도덕성 발달요인

도덕성 발달요인이란, 연구대상자가 순탄형 또는 굴곡형 발달과정을 거쳐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작용한 要因을 말한다. 아동기 도덕적 사회화 과정을 연구한 김광웅과 방은령(1992)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동안 경험한 주변의 인물, 사건, 책, 종교 등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성장하면서 만난 '경험의 유형'을 발달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성인기까지의 발달과정을 다루게 되므로 앞서의 4가지 경험 이외에, '가정 분위기의 경험' '사고의 성숙 경험' 그리고 '다양한 생활 경험'을 추가하였다. 각 경험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표 3과 같다.

한편 발달요인의 분석에서는 진술 내용중 도덕성 발달에 작용한 모든 요인을 뽑아 냈는데 그 결

과, 연구대상자 1인이 2개 이상의 발달요인의 작용으로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서 전체 빈도 수는 실제 연구 대상자 수보다 더 많이 계산되었다.

표 3. 도덕성 발달요인의 범주

요 인	내 용
경험① 가정 분위기	가정의 화목 또는 불화, 유교적 또는 개방적 분위기, 가훈, 집안에서의 위치 또는 역할, 대가족, 경제 상태 등으로 인해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경험② 사람	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조부모, 친척, 선생님, 친구, 선 후배, 이웃 등의 훈육이나 모델링을 통해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경험③ 사건	도둑, 거짓말, 권닝, 장난, 싸움 등의 비행이나 선행, 그 외의 특정 사건에 직접 개입 또는 관찰한 것을 계기로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경험④ 책	위인전, 동화, 소설, 교과서, 교양 서적, 등 책을 읽고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경험⑤ 종교	종교 생활을 통해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경험⑥ 사고의 성숙	발달 과정상 사고의 성숙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경험⑦ 다양한 생활	서클 활동, 봉사 활동, 군대 복무, 학회 활동, 이성 교제, 사회 생활, 취미 생활, 대학 생활, 자취 생활, 자연과의 생활, 기타 활동 등을 통해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기타	위의 요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④ 道德性 概念

도덕성 개념이란, 순탄형 또는 굴곡형 발달과정을 거쳐 연구대상자들이 형성한 道德的 價値 또는 態度를 말한다. 진술에서 '내 가치관은', '내

가 생각하는 도덕성이란',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동의 기준은', '내 삶의 철학은' 등으로 언급된 내용과 문맥 전체로 보아 연구대상자들이 도덕적 가치를 두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했으며, 이때 일상 생활에서 도덕적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거나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만 도덕성 개념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도덕적 가치관과

일상 생활에서의 행동이 다르게 진술된 경우에는 實踐內容을 중심으로 도덕성 개념을 분석하였다.

도덕성 개념의 범주는 도덕성을 내용과 형식의 통합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 Peters(1981)의 도덕 유형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설정하였으며, 범주간에 '發達的 位階'는 가정하지 않았다.

한편 도덕성 개념 범주별 내용은 표 4와 같으며, 이 내용 속에는 기존의 이론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를 반영한 덕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4. 도덕성 개념의 유형 범주

도덕성	내 용
① 관습 지향적 도덕	약속 이행, 시간 엄수, 청결, 정직, 겸소, 순결, 순종, 예의, 원만한 대인 관계 등에 가치를 두고 실천하는 것으로, 내면화된 사회적 규칙 즉, 관습과 관련된 도덕을 말한다.
② 배려 지향적 도덕	연민, 공감, 역할 수용, 선한 생각과 행동, 사랑의 실천, 관용, 동정, 희생, 봉사, 효, 어른 공경, 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 타인 의견 존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등,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도덕을 말한다.
③ 원리 지향적 도덕	법, 규범, 정의, 공정성, 비이기심, 분별력 있는 사고와 행동, 책임과 의무, 종교적 실천, 순수한 인간 관계, 민주주의, 공익,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 인간 존중, 반성, 더불어 사는 삶 등에 가치를 두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원리와 관련된 도덕을 말한다.
④ 의지 지향적 도덕	용기, 성실, 인내, 양심, 진실, 일관성, 결단력, 신념, 자기 절제, 순수한 마음, 신뢰감, 주체적 삶 등에 가치를 두고 실천하는 것으로서, 역 상황에 직면할 때 작용하는 자기 통제력과 관련된 도덕을 말한다.
기 타	위의 유형 ①, ②, ③, ④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분석기간 및 자료처리

내용 분석은 1993년 3월부터 1994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분석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요약하였고, 분석 범주간의 차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χ^2 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및 해석

1. 도덕성 발달과정의 유형

본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표 5와 같은 유형의 발달과정을 통하여 도덕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도덕성 발달과정의 유형

N(%)				
성별	순탄형	굴곡형	발달 유예	계
남	199(67.2)	77(26.0)	20(6.8)	296(100.0)
여	142(68.9)	52(25.3)	12(5.8)	206(100.0)
계	341(67.9)	129(25.7)	32(6.4)	502(100.0)

표 5를 보면 연구대상자들의 67.9%는 순탄형 발달과정을 거쳐 도덕성이 형성되었으며, 약 25.7%는 굴곡형 발달과정을 거쳤고, 약 6.4%는 현재까지 도덕성이 定立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과정유형에서 남녀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chi^2(2, N=502)=0.437$), 남녀 모두 약 1/4이상 屈曲의 時期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른 진술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 내가 생각하는 도덕성은 중략

특히 내가 강조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서의 효와 사랑,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따뜻한 인간애와 책임감, 성실함 등을 들 수 있다

..... 중략

우선 우리 가족을 살펴보면 아빠, 엄마, 나, 여동생 셋 그리고 남동생 하나의 일곱 식구이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계셨었다. 물론 할머니는 시골 큰덕에 사셨지만 아빠는 할머니께 무척 잘 하셨다. 우리 큰 덕은 충청남도 이다.

아빠의 형제분은 6명의 남자 형제 분들과 고모 두 분이 계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느낀 점은 아빠 형제 분들과의 우애와 할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었다. 나의 아빠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를 비롯하여 큰아버지들, 작은아버지들은 정말 효자였다. 할머니는 골수암으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 차례의 수술과 입원 등으로 무척 고생을 하셨다. 그때마다 큰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 그리고 큰 엄마들은 정말이지 열심히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시고 보살펴드렸다. 또 명절 때나 생일 등의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 형제 분들이 모인다. 그때마다 보면 식구들이 전부 할 수 있는 게임이나 놀이 아니면 담소 등을 나누면서 웃음꽃이 핀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와의 사이도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해 주신다. 우리 집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한마디로 전체주의적, 권위

주의적인 아빠인 가장을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다. 아빠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엄마를 제외한 다른 식구들은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물론 엄마도 어느 정도의 선 안에서 아빠에게 의견을 말하는 정도이지 완벽하게 엄마의 결정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빠의 결정이 틀렸다고나 그 결정이 너무 심하다고 느낀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엄마한테 대한 아빠의 태도는 약간은 무뚝뚝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두 분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가정을 보살피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의 사랑은 무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중략

여하튼 어떤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난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남달리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형제들과는 자주 싸우기는 하지만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 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안다. 그래서 어쩔 난 가족의 애정을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학교나 사회에서 친구, 동료, 선배를 나의 언니나 동생들처럼 사랑하고 믿고 자 한다.

이것이 내가 지향하는 인간 관계의 모델이다. 가족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많은 사회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책임감과 성실함에도 나는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

내가 장녀라 그런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딸로서의 교육과 더불어 언니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다. 또한 아빠가 서울과 수원 지역에서는 아빠 형제 중에서는 제일 큰형이기에 또 다른 큰형 역할을 하셨다. 자주 작은 아버지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등을 대접하곤 하신다. 그러면서 작은아버지들과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우

애를 기르곤 하신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엄마 아빠의 말씀 때문인지 난 남달리 책임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의 일이라면 그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그것에 직면하고자 하는 면이 강하고 또한 그러고자 노력한다. 또한 우리 집 가훈이 성실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감과 더불어 성실함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성장했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하는 데 그래야 만이 나중에 좋지 않은 결론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고 안타까움이 적다는 것이 우리 아빠의 가르침이시다. 매 순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내가 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난 이러한 가치를 하나 하나가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사람을 만날 때 성실하게 신뢰하면서 만나고, 모든 일에서도 나의 책임과 성실함과 애정을 다하고자 하듯이 내가 생각하고 중히 여기는 가치가 나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내 행동의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아니 꼭 그래야만 한다." (C017) ...

... 순탄형 발달과정

".....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 엄마를 닮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람이었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숙맥이었고, 시골 처녀 같은 서울 여자였다. 제 주장 한 번 강하게 표현 못하고 남들 하는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렇게 사는것이 가장 잘 살고 바르게 사는것이라고 생각했다. 난 지금 23살에 1학년이다. 재수를 1년하고 나서 직업을 가졌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을 공부하여 S대생이 되었다. 직장생활이라고 해야 11개월 정도였으나 회사도 아니고 판매하는 곳에서 아르바

이트 한거나 다름없다. 그 11개월 동안 난 여러모로 변신을 했다. 그 동안 부모님께서 쳐주신 울타리 밖을 나가니 혼자서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일하던 곳에서 아주 멋있는 여자를 만났다. 지금 함께 음악회다, 연극이다, 서점등을 함께 가는 나이 많은 친구이다. 그 분으로 인하여 내가 눈을 뜬 것 같다. 말로 가르쳐 주지 않고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교훈적 삶에 감화를 받았다.

..... 중략

그 분과 함께 '까미유 끌로텔'을 보았다. 스물한 살 여름이었나 보다. 로댕과 사랑에 빠진 끌로텔. 광기에 휩싸여 생을 불태우는 모습은 큰 무게로 다가왔다. 그 후로 난 많이 변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때는 그것에 푹빠져 나를 잊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 미쳤느냐고 비난받은 일도 몇번 있지만은 그렇게 미칠 수 있는 것은 살아가기 위한 생명과도 같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것으로 인식되었다. 내가 만난 그 분(아줌마)은 싫다는 말을 할 줄 아는 분이다. 미국에서 몇년 계시다가 오셔서 그런지 매우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것은 한국인에게 비위가 상할때가 있다. 처음에 나도 그랬다. 이제는 그것이 편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시 태어 났을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것 내가 생각하는 도덕성은 바로 이것이다." (C 007)

굴곡형 발달과정

"..... 나는 사립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 당시 성적은 전교생의 1/4 안에 들었었다. 그런데 1학년 초에 입학 성적이 나보다 좋은 애들만 선생님에게 귀여움을 받고 사람 대접 받는다는것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선생님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과연 내가 확인한 선생님들의 인간성이 사실인지를 시험하기 위

해 쉬는 시간까지도 열심히 공부했었다. 물론 나의 성적은 엄청난 속도로 좋아져서 전교 10등 안에 진입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한 명씩 상담하면서 통지표를 내주셨는데 바로 그때부터 선생님과 나의 대화시간은 길어졌고 심부름도 항상 내게 시키셨고 자주 교무실로 부르셔서 다른 선생님들께 소개시키면서 내칭찬을 하시곤 하셨다. 결국 내가 느낀 열등생의 괴로움은 나 혼자만의 소외의식이 아님이 증명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선생님들을 매우 싫어 한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 보다도 사범대 애들에게 적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저렇게 방탕하게 지내온 아이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됐을 때 그들은 또 다른 인간 하나를 무참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가난때문에 많은 나날을 괴로움 속에서 보내야 했다. 국민학교 4학년때인 걸로 기억한다. 그때 나는 걸스카웃이었는데 어느날 쓰레기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오후 몇시까지 모이라고 했었다. 그 날은 토요일이었고 마침 엄마가 외출중인 바람에 나는 준비물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만 불참하고 말았다. 회비가 3000원이었는데 나중에 선생님은 내게 회비가 비싸서 못 왔느냐는 등 가나하냐는 등 이상한 말쑼을 하시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그때의 상처로 걸스카웃을 탈퇴하고 말았다.

또 나는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을 끌고루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일 때, 물론 그때도 우등생이었다. 우리 중학교는 고등학교랑 붙어 있었는데, 따라서 중학교 우등생을 그대로 그 고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장학금을 준다고 꼬드기는 일이 태반이었다.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나는 커다란 잘못을 하나 저질렀는데 거기에 동참한 아이들이 꽤 많았다. 그때 다른 애들은 모두 선생님께 따귀를 맞았는데 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지 않았다. 그냥 약간의 질책만이 있었을 뿐이었

다. 그때 선생님은 모의 고사 성적표(반 전체 동수가 기록된 것)를 내미시더니 “내가 너랑 우리 반 30등인 $\times\times$ 랑 똑같이 대하디?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해 주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어떡하니? 다른 애들 다 맞은 거 알지? 선생님이 왜 너를 안 때리는 지도 알지?” 하시는 것이었다. 그때 이후 나는 선생님들이 사랑 운운하시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다. 여하튼 나는 선생님에 대해 감정이 상당히 안 좋다. 나는 도덕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른들이 무심히 내뱉은 말과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여태껏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나는 선생님들의 말에 의해 비참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지만 우선 빨리 사라져야 할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삶에 대한 의욕도, 사람에 대한 애정도 내겐 없다. 나는 사람들이 다 위선자 같고 내가 내 감정을 속이고 해해 웃으며 지내는 것이 싫다.....” (C178) 발달유예의 상태

2. 도덕성 안정기

도덕성 안정기는 도덕성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는데($\chi^2(2, N=470) = 130.57, p < .001$), 표 6을 보면, 순탄형 발달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굴곡형 발달과정을 경험한 사람에 비해 보다 더 이른 시기에 도덕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른 도덕성 안정기

시 기	N		
	순탄형	굴곡형	계
국민학교	185	4	189
중·고등학교	104	51	155
대학교	52	74	126
계	341	129	470

순탄형 발달과정에서는 54.2%가 국민학교시기에 도덕성을 형성하였으며, 30.5%가 중·고등학교시기에, 그리고 15.3%가 대학교시기에 도덕성을 형성하였는데 비해,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는 57.4%가 대학교시기에 도덕성을 형성하였고,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30.5%가, 그리고 국민학교시기에 도덕성을 형성한 경우는 3.1%에 불과하였다.

표 7. 도덕성 안정기에서의 남녀비교 (순탄형)

시 기	N(%)		
	남	여	계
국민학교	95(47.7)	90(63.4)	185(54.2)
중·고등학교	69(34.7)	35(24.6)	104(30.5)
대학교	35(17.6)	417(12.0)	52(15.3)
계	199(100.0)	142(100.0)	341(100.0)

한편 순탄형발달과정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좀 더 이른 시기에 도덕성 안정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chi^2(2, N=341)=8.231, P<.05$),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는 도덕성 안정기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chi^2(2, N=129)=4.044$).

표 8. 도덕성 안정기에서의 남녀비교 (굴곡형)

시 기	N(%)		
	남	여	계
국민학교	3(3.9)	1(1.9)	4(3.1)
중·고등학교	25(32.5)	26(50.0)	51(39.5)
대학교	49(63.6)	25(48.1)	74(57.4)
계	77(100.0)	52(100.0)	129(100.0)

001), '가정 분위기의 경험'은 순탄형 발달과정에서만 작용하였고, '사고의 성숙 경험'과 '다양한 생활 경험'은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보다 굴곡형 발달과정에서 더 많이 작용하였으며, '사람의 경험'과 '사건의 경험'은 굴곡형 발달과정에서 보다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더 많이 작용하였다(표 9).

표 9.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른 도덕성 발달요인

발달 요인	N(%)		
	순탄형 발달	굴곡형 발달	계
경험①	51(7.8)	—	51(6.4)
경험②	282(43.3)	32(22.2)	314(39.4)
경험③	130(19.9)	13(9.0)	143(18.0)
경험④	59(9.0)	8(5.6)	67(8.4)
경험⑤	48(7.4)	417(11.8)	65(8.2)
경험⑥	16(2.5)	36(25.0)	52(6.5)
경험⑦	54(8.3)	38(26.4)	92(11.6)
기 타	12(1.8)	—	12(1.5)
계	652(100.0)	144(100.0)	796(100.0)

표 10. 도덕성 발달요인에서의 남녀비교 (순탄형)

요 인	N(%)		
	남	여	계
경험① 가정분위기	20(5.4)	31(11.1)	51(7.8)
경험② 사람	166(44.6)	116(41.4)	282(43.3)
경험③ 사건	63(16.9)	67(23.9)	130(19.9)
경험④ 책	32(8.6)	27(9.6)	59(9.0)
경험⑤ 종교	33(8.9)	15(5.4)	48(7.4)
경험⑥ 사고의 성숙	11(3.0)	5(1.8)	16(2.5)
경험⑦ 다양한 생활	43(11.5)	11(3.9)	54(8.3)
기 타	4(1.1)	8(2.9)	12(1.8)
계	372(100.0)	280(100.0)	652(100.0)

한편 표 10을 보면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도덕성 발달요인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는데($\chi^2(6, N=640)=25.831, P<.01$), 남자는 '사람의 경험' '사

3. 도덕성 발달요인

도덕성발달요인은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chi^2(6, N=784)=159.612, P<.$

건의 경험' '다양한 생활경험' '종교의 경험'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 여자는 '사람의 경험' '사건의 경험' '가정분위기의 경험' '책의 경험'의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표 11. 도덕성 발달요인에서의 남녀비교
(굴곡형)

발달 요인	N(%)		
	남	여	계
경험① 가정분위기	—	—	—
경험② 사람	18(21.2)	14(23.7)	32(22.2)
경험③ 사건	8(9.4)	5(8.5)	13(9.0)
경험④ 책	3(3.5)	5(8.5)	8(5.6)
경험⑤ 종교	8(9.4)	9(15.2)	17(11.8)
경험⑥ 사고의 성숙	18(21.2)	18(30.5)	36(25.0)
경험⑦ 다양한 생활	30(35.3)	8(13.6)	38(26.4)
계	85(100.0)	59(100.0)	144(100.0)

표 11를 보면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도 발달요인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경우 '다양한 생활 경험'이 가장 많이 작용하였고 그 다음 '사람의 경험'과 '사고의 성숙 경험'이 많이 작용한 반면, 여자는 '사고의 성숙 경험'과 '사람의 경험', '종교의 경험', '다양한 생활 경험' 순으로 많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5, N=144)=10.043, P<.01$).

4. 도덕성 개념

연구대상자들이 형성한 도덕성개념은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chi^2(3, N=464)=9.947, P<.05$), 순탄형 발달과정에서는 배려지향적 도덕성(29.9%)과 의지 지향적 도덕성(31.7%)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는 원리지향적 도덕성(39.5%)이 가장 많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습지향적 도덕성과 배려지향적 도덕성 그리고 의지 지향적 도덕성은

굴곡형 발달과정에서 보다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더 많이 형성되었고, 원리 지향적 도덕성은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보다 굴곡형 발달과정에서 더 많이 형성되었다.

표 12.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라 형성된 도덕성 개념

도덕성개념	N(%)		
	순탄형	굴곡형	계
관습 지향적	37(10.9)	6(4.7)	43(9.2)
배려 지향적	102(29.9)	33(25.6)	134(28.5)
원리 지향적	93(27.3)	51(39.5)	144(30.6)
의지 지향적	108(31.7)	35(27.1)	143(30.4)
기타	1(0.2)	5(3.9)	6(1.3)
계	341(100.0)	129(100.0)	470(100.0)

표 13을 보면 순탄형발달과정에서 형성된 도덕성개념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는데($\chi^2(3, N=340)=15.464, P<.01$), 남자의 경우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원리지향적 도덕성'이 많이 형성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의지지향적 도덕성'이 가장 많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습지향적 도덕성'과 '의지지향적 도덕성'은 남자보다 여자가,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원리지향적 도덕성'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많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3, N=124)=1.028$).

표 13. 도덕성개념에서의 남녀비교(순탄형)

도덕성개념	N(%)		
	남	여	계
관습 지향적	18(9.0)	19(13.4)	37(10.9)
배려 지향적	63(31.7)	39(27.5)	102(29.9)
원리 지향적	67(33.7)	26(18.3)	93(27.3)
의지 지향적	50(25.1)	58(40.8)	108(31.7)
기타	1(0.5)		1(0.2)
계	199(100.0)	142(100.0)	341(100.0)

표 14. 도덕성 개념에서의 남녀비교(굴곡형)

도덕성개념	N(%)		
	남	여	계
관습 지향적	4(5.2)	2(3.8)	6(4.7)
배려 지향적	21(27.3)	11(21.2)	32(24.8)
원리 지향적	31(40.2)	20(38.5)	51(39.5)
의지 지향적	19(24.7)	16(30.8)	35(27.1)
기타	2(2.6)	3(5.8)	5(3.9)
계	77(100.0)	52(100.0)	129(100.0)

이상을 종합해 보면, 도덕성은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보다는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이른 시기에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남자는 약 47.7%가 국민학교시기에 현재의 도덕성을 형성한 반면, 여자는 약 64.4%가 국민학교시기에 도덕성을 형성하였고,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현재의 도덕성을 형성한 경우, 남자가 약 36.6%를 차지한 반면, 여자는 약 5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이 도덕성을 형성한 시기는 약 40.2%가 국민학교 시기였으며, 약 33.0%는 중·고등학교 시기, 그리고 26.8%는 대학교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성장하면서 만난 ‘사람’으로 인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39.4%), 그 외 ‘사건의 경험(18.0%)’, ‘다양한 생활 경험(11.6%)’, ‘책의 경험(8.4%)’, ‘종교의 경험(8.2%)’, ‘사고의 성숙 경험(6.5%)’, ‘가정 분위기 경험(6.4%)’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 중 ‘가정 분위기 경험’이 작용한 경우는 순탄형 발달과정에서만 나타났는데, 특히 남자보다 여자에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사람의 경험’이 작용한 경우는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보다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의 성숙 경험’과 ‘다양한 생활 경험’이 작용한 경

우는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보다 굴곡형 발달과정에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 ‘다양한 생활 경험’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사고의 성숙 경험’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자들이 형성한 도덕성개념은 발달과정의 유형과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습지향적 도덕성은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형성하였고, 배려지향적 도덕성은 순탄형 발달과정과 굴곡형 발달과정에서 고루 분포되었으나,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형성하였다. 원리지향적 도덕성은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보다 굴곡형 발달과정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형성하였으며, 의지향적 도덕성은 순탄형 발달과정에서,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형성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원리지향적 도덕성(30.6%)과 의지향적 도덕성(30.4%) 및 배려지향적 도덕성(28.5%)을 형성한 경우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관습지향적 도덕성(9.2%)을 형성한 경우는 적게 나타났다.

5. 發達猶豫에 있는 事例에 대한 分析

연구대상자들 중 현재까지 도덕성을 정립하지 못한 경우는 모두 32명(남 20/여 12)으로, 이들 중 20명은 기존 價値觀에 대해 混沌狀態에 있었고, 나머지 12명은 否定狀態에 있었다. 이들에게 현재의 혼란이 시작된 시기는 대학교 시기(14명), 중·고등학교 시기(11명), 국민학교 시기(7명)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현재까지 道德性을 확립하지 못한 原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信賴感 缺如가 원인이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7명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挫折의 連續으로 劣等感이 쌓인 경우(C774), 잦은 이사로 지속적인 對人關係를 경험하

지 못하는데 따른 부모와 나 자신에 대한 不信(C600), 小心하고 자기를 卑下시키는 경우(C634), 虛無의이고 現實逃避의이며 자기 자신이 싫은 경우(C786, C092), 優柔不斷하고 依存的인 性格(C597), '나는 실수로 태어나' 存在價値에 懷疑를 느끼는 경우(C123) 등이었다. 특히 이들은 가정이 불화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훈육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등, 부모에 대한 否定的 感情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權威的이고 保守的인 社會에 대한 葛藤에서 비롯된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된 사례는 모두 5개였는데, 家庭의 儒敎的 雰圍氣에 대해서(C569), 뿌리깊은 男兒選好思想에 대해서(C165), 부모의 엄격한 規制에 대해서(C136), 부모의 基督教의 行動規制에 대해서(C110), 그리고 保守的이고 權威的인 社會에 대해서(C588) 葛藤하는 경우 등이었다. 이들 중 3명은 父母의 權威的인 訓育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2명은 우리 社會와, 道德, 教育內容, 言論에 대해 信賴感을 갖고 있지 못했다.

셋째, 인간의 이기적인 단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경우이다.

여기엔 3명의 대상자들이 해당되는데, 사례 C687은, 심장이라도 꺼내 줄 것 같은 친구들과의 友情이 고등학교 入試를 앞두고 너무도 이기적으로 변한 데 충격을 받고 인간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 경우이고, 사례 C578은 고교 때 함께 하숙하던 친구가 하숙비가 없어 주인에게 매몰차게 쫓겨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경우이며, 사례 C540은 12년 동안 시골에서 집안의 長孫으로 大家族生活을 하다 서울로 전학한 후, 利己的인 친구들 속에서 기존의 價値觀(讓步, 他人尊重)을 버리고, 나만 잘되면 그만 이라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경우였다.

네 번째, 우리 社會의 矛盾을 인식하는데서 비롯된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7명이었는데, 이들은 이전에 받았던 教育의 內容과 現實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였다. 大學生들이 데모하는 것을 보며 以前 教育內容에 대해 疑心을 갖기 시작한 경우(C730), 軍生活을 통해 成人으로서 社會生活을 하는데 필요한 價値觀과 기존 價値觀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고 혼란이 생긴 경우(C585), 정직한 자가 무능한 자로 대접받는 社會를 보면서 기존 가치관을 부정하는 경우(C635), 道德的 實踐이 損害를 보는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과연 道德的인 行動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懷疑를 갖고 있는 경우(C538, C602, C056) 등이 있었다. 이중 5명은 軍隊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모두 軍隊生活을 통해 道德的으로 否定的인 價値觀을 形成하는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大學生生活의 不適應에서 오는 경우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3명이었는데, 모두 대학사회가 오로지 취직과 기능추구의 場이란 사실에 실망하고 가치관 정립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였다(C620, C599, C146).

이외에도 주변의 다양한 상황을 접하면서 道德性 본질에 혼란을 겪게 된 경우들이 있었다. 여기엔 모두 8명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성 폭행을 당한 후(국교 6년 때) 심한 도벽이 생겨 대인 관계에서 소외되는 것을 보고, 道德的으로 짓밟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며, 또한 道德的으로 짓밟힌 사람에게 道德的인 行爲를 기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회의를 갖게 된 경우(C123)와 광주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보고 크게 실망한 경우(C166)도 있었다. 또한 명예와 학력을 얻기 위해 부도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다른 한 쪽을 매도하는 풍토를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혼란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C162).

또한 교사의 부적합한 훈육이 道德性을 形成하는데 어려움을 준 경우(C603, C192, C178, C121)와 군대생활이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있다(C603).

이상을 종합해 보면, 否定的인 自我像을 지니고 있거나,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경우, 또는 신뢰되지 못한 주변 환경을 경험하고 자라거나 성장 과정에서 인간의 본질에 실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한 도덕성을 형성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發達猶豫에 있는 사람들 중 현재의 道德的 混亂이 시작된 시기가 연령이 증가한 대학교시기에 가장 많은 것을 볼 때에, 도덕성은 어렸을 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초기에 바람직한 도덕성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발달적인 경험에 따라 얼마든지 變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도덕성은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모두 道德적으로 成熟할 때에 發達하고 持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의 및 결론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도덕성 발달은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라 그 성격이 매우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몇가지 측면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Kohlberg (1981, 1984)는 도덕성 발달을 인지발달에 근거하여 上位段階는 下位段階를 位階의으로 재통합함으로써 以前段階의 도덕성이 질적으로 상이한 다른 도덕성으로 대체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 도덕성 발달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그 발달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단일의 과정을 통해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달적 경험에 따라 초기에 형성된

도덕성이 유지되면서 附加的으로 새로운 도덕성이 첨가되는 과정을 겪는 사람도 있고(순탄형), 초기에 형성된 도덕성의 효과가 소멸되고 새로운 도덕성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으며(굴곡형), 성인이 되어도 도덕성이 안정된 상태로 발달하지 못한 경우(발달유예)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약 1/4 이상이 굴곡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인생의 초기에 형성된 도덕성이 성인기 까지 유지되지 않는 경우는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본 연구 결과 발달과정의 유형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도덕성 발달과정에서 女子는 男子에 비해 그 과정이 산만하다고 주장한 Freud(1921)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Freud는 아동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5-6세 경에 부모와의 同一視 過程을 거쳐 基本的인 道德性이 완성된다고 보고 이때의 효과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하였으며, Kohlberg는 인지적으로 형식적 조작이 가능한 청소년기 이후에야 도덕적 내면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 결과 도덕성이 안정된 형태로 형성되는 시기는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劃一的으로 그 時期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약 6.4%에 이르는 사람이 현재 도덕성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로 있고, 이들중 지금의 혼란 상태가 시작된 시기가 대학교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덕성이란 결코 어렸을 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인생 초기에 特定の 도덕성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발달적인 경험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이른 시기에 도덕성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여자의 도덕적 내면화를 남자와 비교하여 열등 또는 下位の 水準으로 본 Freud나 일부 이론가들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것이였다.

또한 先行研究들은 인생의 초기 과정에서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父母' 변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김광웅, 방은령, 1992; Becker, 1964; Freud, 1921; Hoffman, 1977, 1981; Parsons & Bales, 1955). 본 연구에서도 초기에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要因은 '사람의 경험'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父母'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文獻考察을 통해 아들과 딸의 道德的 社會化의 주 담당자는 어머니이며,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주장한 Hoffman(1981)이나,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그리고 딸에게는 어머니가 道德的 社會化의 주 담당자라고 밝힌 Freud(1921)의 주장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아들과 딸에게 道德的 社會化의 주 담당자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자신의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부모 모두를 언급한 경우(17)와 아버지만을 언급한 경우(23) 그리고 어머니만을 언급한 경우(15)를 살펴볼 때, 도덕성 발달에서 작용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儒敎의 價値觀이 오랫동안 지배해 온 우리의 文化的 背景에서 오는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家父長 中心의 제도와 관습이 이어져 왔으며, 아버지는 집안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價値의 전달자임과 동시에 가정에서의 道德的 判斷者이자 결정권자로서 기능을 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愛情에 바탕을 둔 說明的 訓育方法이 도덕성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왔으나(Becker, 1964; Hoffman, 1977),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信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훈육이 설명적인 온화한 방법이거나

혹은 體罰과 같이 엄격한 형태이거나 상관없이 도덕성 발달에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광웅과 방은령(1992a)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것으로서, 이것 역시 儒敎에 바탕을 둔 우리의 文化的 背景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진다. 한편 父母가 道德性 發達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주로 순탄형에서(주로 초기 과정) 나타났으며, 굴곡형에서는 '사람의 경험' 효과가 크지 않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즉 사람의 경험 안에서는 부모 보다 친구나 선생님이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생활 경험'과 '사고의 성숙 경험'이 가장 많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곡형 발달과정은 발달과정에서 도덕적으로 갈등의 시기를 경험하는 유형이며, 주로 중·고등학교시기 이후에 도덕성이 안정된 형태로 형성된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결과는 발달적으로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Erikson(1963)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心理的 猶豫期가 道德的인 成熟을 위해 유익하다고 보았으며, Hoffman(1981)과 Kohlberg(1984)는 靑少年期에 갖게 되는 道德的인 葛藤은 道德的인 成熟을 촉진시키는 데에 유익하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의 굴곡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도덕적으로 屈曲의 時期를 경험할 때에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自己省察과 自己檢證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체험은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도덕성 발달에서 一回의 事件의 經驗이 주는 효과가 매우 큼을 시사하고 있다. 모두 143명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事件'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는데, 김광웅과 방은령(1992a)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동안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사건의 경험'은 약 17%를 차지했었다. '사건'의 주된 내용은 도벽이나 거짓말 등 不道德한 行爲가 많았는데, 일

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매우 사소한 일로도 도덕적으로는 決定的인 影響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 동안 이러한 문제는 성장과정에서 개인의 행위에 대해 환경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연구 결과, 이것은 개인의 行爲와 環境의 반응간의 函數關係라기 보다는, 개인이 환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子女가 父母에 대해 愛情과 信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어떤 형태의 반응(즉, 說明 혹은 處罰 등)을 보이든지, 자녀는 부모의 반응에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의 共通點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본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형성한 도덕성개념은 原理指向의 道德性으로 나타났고, 意志指向의 道德性和 配慮指向의 道德性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탄형 발달과정에서는 의지지향적 도덕성이 가장 많이 형성되었으며, 굴곡형 발달과정에서는 원리지향적 도덕성이 가장 많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갈등의 시기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自己統制力과 관련된 意志的인 道德性을 더 많이 형성하게 되며, 道德的으로 屈曲의 時期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리에 민감해져서 原理的인 道德性에 우선적인 價値를 부여하게 됨을 나타내었다. 특히 굴곡형의 경우, 理論과 現實의 乖離에서 오는 葛藤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러한 현상을 낳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관습지향적 도덕성과 의지지향적 도덕성은 男子보다 女子가 더 많이 형성하였고,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원리지향적 도덕성은 女子보다 男子가 더 많이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性格의 特性과 관련지어 관습 준수나 배려적인 것은 女性的

道德性으로 보고 原理指向的이고 自己統制力과 관련되는 도덕성은 男性的 道德性으로 보았던 Gilligan(1982)과 Lyons(1983)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女性의 特性으로 간주되었던 배려지향적인 측면이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었고 자기통제력과 관련되는 의지지향적 도덕성은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성격의 특성으로 도덕성을 추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道德性은 性格의 한 측면으로 설명되어 질 수는 있지만 性格으로 그 本質을 규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또한 배려지향적인 도덕성이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던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도덕성은 單一の 過程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劃一化된 틀 속에서 도덕성을 설명하고 측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 발달과정을 순탄형과 굴곡형 그리고 발달유예의 경우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발달과정의 유형에 따라 도덕성 발달과정은 서로 다른 內容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도덕교육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도덕성은 특정의 시기 동안 발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덕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기 동안에는 부모나 교사 등 주변의 사람이나 가정 분위기 또는 특정의 사건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나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청소년기 이후에는 자기 성찰이나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교육의 효과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도덕교육에서는 배려 지향적 도덕과 원리 지향적 도덕 그리고 의지 지향적 도덕이 주요 덕목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도덕적 판단력을 기르는 일과 더불어 도덕적 행동을 가르치는 일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도덕성은 인간사회에서 반드시 형성해야 할 인격특성이며, 바른 도덕성을 형성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도덕성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의 도덕성 실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덕성 본질에 근접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도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一助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대로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에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가정과 학교 그리고 모든 환경이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연구를 통해 부모와 학교와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

참고 문헌

- 김광웅과 방은령(1992a). 아동기 도덕적 사회화 과정. *아동연구*, 7, 숙명여자대학교 아동 연구 소.
- 김광웅과 방은령(1992b). *아동발달*. 서울: 형설 출판사.
- 김상윤(1988).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에서 단계별 특성에 따른 도덕성 발달 경향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은(1969, 재인용).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재은(1994). *우리의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 金亨錫(1992). *윤리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 류점숙(1991). *조선후기 동몽교재의 내용분석*. 경
- 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계학(1990). 한국사회의 도덕화를 위한 도덕 교육적 처방. *교육학연구*, 28(1), 45-54. 한국교육 학회.
- 이계학(1992).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의 청소년 문화* 1. 93-172.
- 李敦熙(1986). *道德教育原論*. 서울: 教育科學社
- 이민태(1988). *도덕과 도덕교육*. 배영사신서 10.
- 장성모(1986). 교육내용으로서의 도덕의 내용과 형식. *도덕교육연구*. 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 정문성과 구정화(1991).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의 관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 74-89.
- 정세구 편저(1990).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현대 한국윤리*. 서울: 교육과학사.
- 정세구(1991). *가치 태도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사 신서. 75.
- 최정근(1992). 도덕교육 방법론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의 통합적 접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섭(1985). *학교의 도덕사회화에 관한 상호작용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정규, 안귀덕, 이종각 및 이장호 (1989). *韓國人의 靑少年期 社會化過程 研究*.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Aronfreed, J.(1961). The nature variety and social patterning of moral response to transgress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223-241
- Becker(1964, 재인용). 정세구 (1991). *가치 도덕 교육의 이론과 실제*. 배영사신서 75.
- Blasi, A.(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 moral action : A critical review of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1).

- Branden, N.(1992). The power of self-esteem. 강승규 역(1994).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 학지사.
- Buss(1988, 재인용). 김상윤(1988). 인지적 도덕 발달 이론에서 단계별 특성에 따른 도덕성 발달 경향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Eisenberg-Berg, N., Lennon, R., & Roth, K. (1983). Prosocial development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9, 840-855.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윤진과 김인경 역(1988). 아동기와 사회.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Erikson(1970, 재인용). 박아청(1986). 아이덴티티론. 서울 : 교육과학사.
- Freud, S.(1921). 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 In A. Dickson. (Ed.) (1985),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and other works.*(Vol. 12). Sigmund Freud. Pelican Books.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ce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 Havard University Press.
- Gross(1972, 재인용). Hoffman, M. L.(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moral internalization. In M. E. Lamb.(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 Tohn Wiley & Sons.
- Hay, D. F.(1979). Cooperative interactions and sharing between very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647-653.
- Hoffman, M. L.(1970). Moral development. In P.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 Wiley.
- Hoffman, M. L.(1977). Moral internalization ;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New york : Academic Press.
- Hoffman, M. L.(1981). The role of the father in moral internalization.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the child development*. (2nd.). New York : John Wiley & Sons.
- Holstein, C. B.(1976). Development of moral judgement ; A longitudinal study of males and females. *Child Development*, 47, 51-61.
- Kohlberg, L.(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김봉소와 김민남 역(1985). *도덕 발달의 철학*. 서울 : 교육과학사.
- Kohlberg, L.(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김민남 역(1988). *도덕발달의 심리학*. 서울 : 교육과학사.
- Kohlberg, L. & R. Kramer(1969).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2, 93-120.
- Kohlberg, L., F. C. Power & A. Higgins (1989). *Lawrens Kohlberg's approach to moral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Lyons, N. P.(1983). Two perspectives on self relationship and morality. *Havard Educational Review*, 53(2), 125-145.
- Lytton, H.(1979). Disciplinary encounters between young boys and their mothers and faty system? *Developmental Psychology*, 15, 256-268.
- Mischel, W.(1970). Sex differences, sex typing, and identification. In P. Musse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 Wil-ey.

- Nucci, L. P.(1982). Conceptual development in the moral and conventional domai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 93-122.
- Parsons, T. & R. F. Bales(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l : Free Press.
- Peters, R. S.(1981).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London : George Allen & Unwin.
- Podd, M. H.(1972). Ego identity status and morality ;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evelopmental constructs. *Developmental Psychology*, 6, 497-507.
- Rest, J. R.(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heingold, H.(1982). Little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adults, a nascent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3, 114-125.
- Skinner, B. F.(1971). Beyond freedom and dignity. 차재호 역 (1994).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서울 : 탐구당.
- Smetana, J.(1981).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 1333-1336.
- Turiel, C.(1966, 재인용). 김민남 역. *도덕발달의 심리학*. 서울 : 교육과학사.
- Turiel, C.(1977). Conflict and transition in adolescent moral development II : The resolution of disequilibrium through structural reorganization. *Child Development*, 48, 634-637.
- Turiel, C.(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ker, L. J.(1984). Sex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55, 677-691.

A Study on Moral Development Process(1)

—content analysis of self-reports on moral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Bang, Eun Ryung

Department of Child Stud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moral development process in four aspects : the type of moral development process, the period of moral integration, the factors of moral development and the concept of morality. I used self-reports on moral experience of 502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Choonchun city which were analyzed by content-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 First, there were two types in moral development process. One is Soontun type(S type) and the other is the Goolgock type(G type). Students experienced the adaptive and additive process in the S type of their moral development. That is, the morality formed in childhood has an effect on their behavior and attitude even after they grow up. And they experienced the winding process in the G type of their moral development. That is, the morality formed in childhood has no effect on their adult behavior and attitude, and their new morality is different from that their childhood. In their moral development process, 67.9% of students experienced the S type, 25.9% experienced the G type, and 6.4% still experience the moral moratorium.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types of moral development process.

Secondly, students integrated gerally morality during their elementary school period in the S type. And they were influenced by experiences with 'person' and 'event', and the concept of morality formed mostly in the S type was 'will-oriented morality'.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S type of moral development process.

Thirdly, stidents intergrated generally during their college school period in the G type. And they were influenced by experiences with 'cognitive maturation' and 'various activities', and the concept of morality formed mostly in the G type was

'principle-oriented morality'.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G type of moral development process.

Fo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 type and the G type in moral development process. Morality was intergrated earlier in the S type than in the G type. And the factors of experiences with 'person', 'event', and 'home psychological environment' in the S type had influenced on moral development more than in the G type. But the factors of experiences with 'cognitive maturation' and 'various activities' in the G type had influenced on moral development more than in the S type. The S type led them to form 'will-oriented morality', 'care-oriented morality' and 'habit-oriented morality' more than in the G type, while the G type led them to form 'principle-oriented morality' more than in the S type.

Key Words : moral development process · the period of moral integration · the factor of moral develoment · the concept of morality · S type · G type